

제1차제주관광미래전략워크숍 결과보고서

제주관광 질적성장 방안 모색

▶ 주최	제주관광공사	
▶ 일시	2016년 1월 19일(화), 14:00~	
▶ 장소	제주웰컴센터 3층 대회의실	
▶ 진행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주제발표	전 효 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계R&D센터 센터장	
▶ 토론(가·다·술)	강 석 창 JIBS 보도국장 고 미 제민일보 경제부 부국장 고 승 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국 국장 김 창 식 제주관광학회 학회장 김 태 엽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과장 문 경 호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 처장 박 운 정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양 필 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양 호 석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팀장 오 문 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책기획실 실장	오 흥 욱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 오 창 현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 처장 윤 철 수 헤드라인제주 대표 이 재 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임 성 준 세계일보 사회2부 차장 임 철 수 한국관광공사 관광시장조사팀 팀장 임 흥 철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행정팀 팀장 장 문 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정 승 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 조 진 훈 제주컨벤션뷰로 마케팅팀 팀장

-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제주관광의 현안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매월 특정 이슈와 관련한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본 워크숍을 통하여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발전적 대안들이 도출되어, 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제주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내외 질적 성장 지표 관리 사례

2016. 1. 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계R&D센터장/연구위원 전 효 재
(hjoun@kdi.re.kr)



CONTENTS

- 01 관광통계 개요
- 02 관광통계의 질적 영역
- 03 국내외 관광통계 질적 지표
- 04 정책 제언
- Q & A

0. 질적 성과란?

▮ 재정사업의 성과 평가

- 재정사업의 성과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 평가과정, 평가결과, 환류계획, 환류계획 이행여부

▮ 질적 성과 (동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지표 사례)

- 기존의 투입 및 과정 중심의 양적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 평가를 지양
- 산출 및 결과 중심의 질적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를 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 질적 성과 지표 (예시)

- 정책 영역(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지역 성장/격차 해소, 서비스 만족도, 피해예방, 정책홍보/행사규모 및 참여자수(참가국수), 국제협력/교류 등
- 경제 영역: 수입대체, 해외 수출, 매출 기여, 원가 절감 등

3

01 관광통계 개요

1. 관광통계 개요

관광부문 승인/비승인 통계 개요

- 국민여행실태조사 (2,606가구, 6,746명)
-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월 1,000명/연 12,000명)
-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약 3,500개 사업체)
- 한국 관광산업 경기 및 관광지출 전망조사 (경기동향 300개 사업체, 지출 1,000명)

조사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	1976.09.18. (승인번호 31401)	1976년	반기 (연 2회)
	외래관광객실태조사	1980.05.08. (31402)	1980년	1년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8.09.02. (11317)	2007년	1년
보고통계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1975.07.29. (11305)	1975년	월
	호텔업운영현황	1976.08.26. (11307)	1977년	월
조사통계 (비승인)	한국 관광산업 경기 및 관광지출 전망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동향	2007년	분기

5

[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English](#)
[메일보내기](#)

[Tourgo 소개](#)
[통계](#)
[정책&연구](#)
[관광자원](#)
[고객센터](#)

주요통계

공지사항

- 2014년 관광자원통계 관광지/관광단지 통계 추가 업데이트... 2016.01.09
- 2015년 11월기준 관광동향분석 발간 2016.01.05
- 2015년 11월 관광수지 동향(잠정) 2016.01.05
- 2016년 연간 및 1/4분기 관광산업 경기 및 관광지출 전망... 2016.01.04
- 2014년 관광자원통계 문화관광축제 및 안보관광지 업데이트... 2015.12.29

최근등록자료

- [관광지식채널] 키워드로 보는 2016년 세계관광트렌드 2016-01-13
- [국외연구보고서]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an... 2016-01-05
- [국내연구보고서] 안전성평가 비대상 유기사설,기구 안전... 2016-01-05
- [국내연구보고서] 10YFP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 관련 ... 2016-01-05
- [국내연구보고서] 관광 창업기업 육성 방안 2016-01-05

정기간행물

관광채용정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만 제공하는 관광통계 랭킹

오늘의 주요 관광뉴스를 모아보는 Today Topic

열린지식 Poll

2015년 한해 동안 여행을 목적으로 디지털을 방문한 횟수는?

질문: 1~3회

Tourgo 뉴스레터

r/main/main.do

관광정책 TOP5

- 중국인 FIT관광객 방한실태조사.pdf
- [별첨]-참고문헌_1423707152037.hwp 키워드로_보는_2015_국내외...
- 기본연구_2014-51_최근_관광트렌드_분석_및_전망_회경은_안희자,...
- Hot_Issue_Brief_20140408(수정).pdf

[관광기관](#)
[FAQ](#)
[Q&A](#)
[제언의견](#)
[문화예술 자치정보 시스템](#)
[관광 3.0 소개](#)

[f](#)
[t](#)
[b](#)

발문자 수
 두이고 831,
 모바일 19,
 블로그 492,

1. 관광통계 개요

■ 관광통계 동향과 이슈

- 관광정책: 과학적 기반의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과 정책 발굴 및 자원 배분 (정부기조)
- 정부3.0: 통계 원자료 공유 및 활용 증대 (비즈니스/콘텐츠 창출 기반)
- 정책과학화: 빅데이터 기반의 확충 및 정책 발굴 (빅데이터 분석 기반 확충)
- 경제관련 부처: 지역경제/일자리 동향의 요구도 증대 (국민국내관광)
- 위기발생시 지역경제의 영향 파악 (관광사업체)
- 정책 성과를 대표하는 통계 지표 발굴 및 생산체계 구축 (통계 개선)
- 빅데이터와 통계 간의 상호보완 (업종별 소비지출 동향)
- 통계품질(통계청): 포괄성(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적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 정책 우선 순위로서 통계 정책의 위상 (조직, 예산)

7

02 관광통계의 질적 영역

2. 관광통계의 질적 영역

- 관광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질적 성장 강화
- 기존 조사통계/보고통계의 한계, 정책과 통계의 연관성 한계
- 실물기반의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정책 선도

구분	내용	한계점	비고
관광시장 조사 (소비자)	시장 규모 거시적 동향	시장 세분화	전국/광역 단위 연간 단위
관광산업/시설 통계 (사업체, 시설)	업종 개체수 업종별/시설별 수준 광역단위 수준	지역단위 해석	업종 단위 연간 단위
관광 경제/경기 전망 (소비자/사업체)	업종별 동향 단기 전망	조사대상 범위	예산 규모
관광 빅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개별 행태/수준	범위 한계(포괄성)	카드사, 통신사 등

9

2. 관광통계의 질적 영역

- 관광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질적 성장 강화
 - 국내외 관광객 => 관광사업체(공급) 지표 체계 전환
 - 관광객수 => 공급량/매출기반 관광공급자/관광시설의 성장 관리
- 기존 조사통계/보고통계의 한계, 정책과 통계의 연관성 한계
 - 국가별 시장 => 관광시장 세분화(행태별, 성/비수기별 등)를 통한 정책범위 확대
 - 통계 => 정책지표 중심 (기존 관광시장의 유지/확대, 신규 관광시장 창출 등)
- 실물기반의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정책 선도
 - 경제동향/전망 => 관광사업체 예약/매출, 가동율, 서비스 기반의 지역관광 공급망 관리
 - 지역 경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정책으로서 관광정책

10

03 해외 관광통계 질적 지표

3. 해외 관광통계 질적 지표 (EU)

■ EUROSTAT _ EU 공식 통계

- 관광통계의 핵심은 숙박통계에 의해 집계, 연간 및 월간 조사
- 여행국가, 여행목적, 체류기간, 숙박시설, 교통수단, 성별, 연령대, 학력, 수입 등
- EU 28개국 대상 숙박관광 발표
- 숙박통계 – Night spent by residents, Nights spent by non-residents 구분
- 또한 Seasonality in the tourist accommodation sector – 월별 EU 입국객과 Night spent에 대한 계절성 분석

3. 해외 관광통계 질적 지표 (EU)

I EUROSTAT _ 숙박 통계 (Accommodation statistics)

- 숙박시설 통계: 섹션1과 섹션 2는 임대 숙박시설(rent accommodation)(수용력 및 사용), 섹션 3은 비임대 숙박시설(non-rented accommodation), 섹션 4는 유형별 (Classification)로 구분
- Monthly data tourism industries(NACE 55.1, 55.2 and 55.3)
관광숙박시설의 월별 점유율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도착과 숙박 기간
호텔 및 유사 숙박시설의 침대 및 객실의 순 객실이용률
- Annual data on tourism industries (NACE 55.1, 55.2 and 55.3)
관광숙박시설의 점유율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도착과 숙박 기간
관광숙박시설의 수용력 : 객실 수 및 침대 수
- Regional data – Annual occupancy (arrivals and nights spent by residents and non-residents), by degree of urbanisation and by coastal/non-coastal area
- Annual data on number of establishments, bedrooms and bed places

13

3. 해외 관광통계 질적 지표 (EU)

	Number of trips (thousands)			Breakdown of all trips by destination and duration (%)				Share of the population (aged 15+) taking part in tourism trips for personal purposes (%)
	All trips	Short trips (1-3 nights)	Long trips (4+ nights)	Short domestic trips (1-3 nights)	Long domestic trips (4+ nights)	Short outbound trips (1-3 nights)	Long outbound trips (4+ nights)	
EU-28 (*)	1 106 743	636 831	469 912	50.8	24.5	6.8	17.9	60.9
Belgium (*)	13 330	4 969	8 361	13.0	6.9	24.3	55.8	49.2
Bulgaria	3 966	2 179	1 787	49.9	36.1	5.0	8.9	22.2
Czech Republic	31 280	19 679	11 601	58.3	23.3	4.6	13.8	73.5
Denmark (*)	29 164	20 947	8 217	62.5	10.9	9.3	17.3	83.0
Germany	248 582	132 711	115 871	45.1	19.7	8.3	26.9	77.0
Estonia	2 899	2 105	795	53.4	6.4	19.2	21.0	62.9
Ireland	11 669	6 585	5 083	40.6	9.7	15.9	33.8	70.6
Greece (*)	7 087	2 926	4 161	39.6	52.2	1.6	6.5	38.0
Spain	132 351	91 134	41 217	68.3	26.2	2.6	5.0	53.3
France (*)	225 025	120 875	104 149	50.8	38.3	2.9	8.0	72.1
Croatia	9 151	5 175	3 976	42.1	25.9	14.4	17.5	47.2
Italy	52 687	25 135	27 551	41.5	37.0	6.2	15.3	42.5
Cyprus (*)	2 545	1 379	1 166	43.3	10.5	10.8	35.3	51.6
Latvia	4 402	3 361	1 041	64.0	7.7	12.4	15.9	51.4
Lithuania	4 353	2 680	1 673	47.5	12.0	14.1	26.5	56.2
Luxembourg	1 680	741	938	3.0	0.3	41.1	55.6	84.9
Hungary	16 050	10 561	5 489	53.3	20.9	12.5	13.3	36.8
Malta	526	256	270	32.0	4.1	16.8	47.2	50.6
Netherlands	43 247	22 646	20 601	42.8	17.0	9.6	30.7	83.5
Austria	22 401	12 365	10 037	38.3	16.0	18.9	28.8	75.6
Poland	14 940	9 817	5 123	63.5	27.6	2.2	6.7	39.7
Portugal	17 682	10 490	7 192	58.7	35.9	0.7	4.8	25.1
Romania	4 637	2 990	1 647	35.8	7.9	28.7	27.7	61.4
Slovenia	6 894	3 856	3 038	50.0	19.1	5.9	25.0	56.0
Slovakia	39 083	29 573	9 510	63.7	14.3	11.9	10.1	88.5
Sweden	16 113	91 896	69 417	50.6	18.0	6.4	25.1	65.7
United Kingdom (*)	18 752	8 509	10 142	23.1	12.4	22.9	41.7	83.4
Switzerland (*)	18 752	8 509	10 142	23.1	12.4	22.9	41.7	83.4

(*) Number of trips: estimate made for the purpose of this publication, compiled using the sum / average of the latest available data for the EU Member States.

(*) Share of the population (aged 15+) taking part in tourism trips for personal purposes: 2012.

(*) Number of trips and breakdown of trips: 2012.

(*) 2012.

Source: Eurostat (online data codes: tour_dem_ttot and tour_dem_ttg)

14

3. 해외 관광통계 질적 지표 (EU)

	Number of establishments (units)	Number of bed places (thousands)	Nights spent by residents and non-residents (millions)
EU 28	561 956	30 269.6	2 641.4
Belgium	5 005	372.9	31.4
Bulgaria	2 353	302.4	21.6
Czech Republic	9 970	740.7	43.3
Denmark	1 102	417.6	28.5
Germany	51 954	3 481.6	354.9
Estonia	1 320	55.5	5.7
Ireland (*)	7 712	215.3	28.9
Greece	33 986	1 227.2	91.9
Spain	46 488	3 437.4	389.2
France	28 240	5 049.7	403.6
Croatia	62 020	897.1	94.4
Italy	157 521	4 729.2	376.7
Cyprus	795	97.1	14.0
Latvia	628	38.4	3.8
Lithuania	1 837	69.3	6.1
Luxembourg	457	66.7	2.6
Hungary	4 000	422.0	
Malta	170	43.4	
Netherlands	9 126	1 404.9	
Austria	20 334	881.1	
Poland	9 775	679.4	
Portugal	3 357	491.1	
Romania	5 344	291.2	
Slovenia (*)	997	105.6	
Slovakia	2 803	190.3	
Finland	1 443	254.1	
Sweden	4 201	805.0	
United Kingdom (*)	86 597	3 494.4	
Iceland	910		
Liechtenstein	89		
Norway (*)	2 170	519.2	
Montenegro (*)	524	149.3	
FYR of Macedonia	430	42.5	
Serbia	881	191.7	

(*) Nights spent by residents and non-residents: 2012.

(*) Number of establishments: 2011.

(*) 2012.

Source: Eurostat (online data codes: tour_cap_nat and tour_occ_nat)

	Nights abroad	Share (%)
EU-28 (*)	2 381.5	100.0
Top 10 (*)	2 111.8	88.4
1 Germany	745.6	31.6
2 United Kingdom (*)	546.5	23.1
3 France (*)	211.7	9.0
4 Netherlands	168.0	7.1
5 Italy	93.2	3.9
6 Spain	91.3	3.9
7 Belgium	85.5	3.6
8 Austria	65.9	2.8
9 Denmark (*)	54.6	2.3
10 Finland	49.6	2.1

(*) Estimate made for the purpose of this publication, based on available data.

(*) Sum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 2012.

Source: Eurostat (online data code: tour_dem_intot)

15

3. 해외 관광통계 질적 지표 (프랑스)

INSEE _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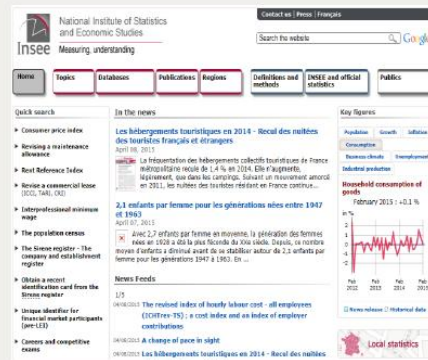
- 관광통계 – Hotel Occupancy Survey, Outdoor Accommodation Occupancy Survey, Other Collective Tourist Accommodation Occupancy Survey
- Hotel Occupancy Survey의 경우 우리나라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체계
 - 종류, 수용력, 일 객실 점유율, 거주국가/관광객의 도착일/숙박기간, 평균 체류기간, 비즈니스 관광의 비율
- Outdoor Accommodation Occupancy Survey – 캠핑장 숙박 점유율 (거주/비거주자)
 - 캐러밴 또는 레저차량 야영장 및 지역에 대한 조사
 -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5개월간의 점유율: 제고(stock)는 매년 11월 30일 측정
 - 조사내용 : 장소의 특성, 운영기간, 숙박 수용력(빈 공간과 임대 숙박시설 공간), 공간의 점유율(빈 공간과 임대숙박시설), 월별 점유율(도착과 숙박기간의 관점에서) 장소의 형태에 따른(빈공간과 임대숙박시설) 그리고 거주고객의 평균 국가

16

3. 해외 관광통계 질적 지표 (프랑스)

INSEE _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

- Other Collective Tourist Accommodation Occupancy Survey는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는 시설의 점유율 관찰
- 단체관광객 숙박시설로 유스호스텔, 관광 및 호텔 주거, 가족 휴가 주택, 휴가 마을 등이 포함 (산업분류코드는 숙박시설 운영자)



17

3. 해외 관광통계 질적 지표 (프랑스)

Tourist accommodation capacity in France as of 1 January 2012

	Number of establishments (in thousands)	Beds	
		in thousands	in %
Tourist hotels	17.0	1,229.4	6.1
Tourist residences	2.1	664.6	3.3
Campsites	7.8	2,716.6	13.4
Holiday villages and family homes	1.1	271.2	1.3
Self-catering accommodations	161.8	728.2	3.6
Bed and breakfast	36.8	73.6	0.4
Youth hostels	0.3	35.6	0.2
Total rented accommodation	226.9	5,719.3	28.3
Own holiday homes	2,902.9	14,514.6	71.7
Total	3,129.8	20,233.8	100.0

Sources: Insee, Dgci, regional partners, SNRT, FNGF, Clévacances France, Accueil paysan, Fleurs de soleil.

Trips in metropolitan France by type of accommodation

	Breakdown by trips (in %)	Breakdown by overnight stays (in %)	Average length of stay (in nights)
Rented accommodation	29.8	34.2	6.2
of which Hotels	10.5	6.1	3.1
Campsites	5.7	9.0	8.5
Rentals, self-catering, bed and breakfast	11.3	16.3	7.7
Non-rented accommodation	70.2	65.8	5.0
of which Own holiday home	9.9	16.3	8.8
Relatives	46.3	38.7	4.5
Friends	11.4	8.2	3.8
Total for metropolitan France	100.0	100.0	5.4

Source: Dgci, SDT Survey.

18

3. 해외 관광통계 질적 지표 (일본)

■ 일본 총무성 숙박 여행 통계 조사

- 통계법 제 27 조에 규정하는 사업소 모집단 데이터베이스 (총무성) 표본을 바탕으로 추출된 호텔, 여관, 간이 숙소 회사 · 단체 숙소 등
- 종업원 수 10 인 이상 사업장 : 전수 조사
- 종업원 수 5 명 ~ 9 명 사업장 : 1/3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본 조사
- 종업원 수 0 명 ~ 4 명 사업소 : 1/9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본 조사
- 분기 매월 총 · 실제 투숙객 수 및 외국인 총 · 실제 투숙객 수
- 분기의 각 달의 총 숙박 자수의 거주지 별 내역 (현, 현 외의 다른)
- 분기의 각 달의 외국인 총 숙박 자수의 국적 별 내역 등

19

04 정책 제언

4. 정책 제언

2015년 WEF 관광경쟁력 지수

- 인구1백명당 호텔객실수 97위, 호텔가격지수 78위, 비즈니스 방문객 관광목적 체류기간 연장 86위 등
- 국가 단위 지표와 지역 단위 지표 => 정책 성과 대표성 강화

질적 성장의 관리는?

- (공급) 관광객의 질적 향상 (X), 관광서비스 공급의 질적 성장 유도
- (경쟁력)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과 지역 경쟁력을 갖추는 정책 전환의 계기
- (지표) 외래객 재방문객에 대한 지표 관리 (유치 정책)
- (시장) 관광시장 규모의 확대와 관광공급망의 질적 성장을 도모

21

4. 정책 제언

제주 관광의 질적 지표

- 마케팅 관리 지표와 정책 관리 지표의 구분
- 질적 지표 지속성(과정), 질적 성과 지표(이행)와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지표(환류),

구분	질적성장	발전방안
적용년도	2016년 ~	
주요지표	① 관광객 체류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한계, 예산 한계 - 시장조사의 한계 - 질적 성과지표 확대 (숙박시설별 이용율, 가격대별 이용율) - 가격대별 여행상품 이용율
	② 1인당 평균 지출비용	
	③ 관광객 만족도	
	④ 여행형태 : 개별, 패키지 등	
	⑤ 마케팅 다변화지수	신시장창출 지표 3대시장 성장관리지표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별 재방문율 지표 내국인, 외국인(국가별) 숙박시설 이용 지표 기타 재방문율, 관광불편신고접수건수, 이행과 제도 개선
	⑤-1 일본관광시장 회복	
	⑤-2 중국외 외국인관광객 점유율	
	⑤-3 온라인 홍보기반 구축	

22

주요 토론내용

사회 :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바쁘신 가운데 제1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에 있어 어떠한 방향성에서 추진되어야 할지, 큰 방향하에서의 제주관광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금일 토론은 총 2부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1라운드와 2라운드는 각 특색을 달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1라운드에서는 주로 질적지표 도입의 필요성 및 현황 등에 대한 토론을, 2라운드에서는 이를 위한 제주관광공사, 협회, 도정당국 등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먼저 1라운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관점에서 질적성장 지표와 같은 발표내용 또는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말씀해주실 분들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창 식 제주관광학회 학회장

관광산업의 질적성장 지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함께 제주관광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작년 1300만명이 넘는 등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관광의 외적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대규모 투자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외부경제에 얼마이게 되지 않겠느냐 같이 주민의 걱정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가 비정규직 위주로 이루어지는 등 지역주민이 관광산업 성장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이 어떻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 유형 및 소비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폭증하는 관광객에 대해 주민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정말 관광객이 맞는지 등에 대한 지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UNWTO의 기준에 맞춰 1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을 순수관광객, 1일 미만 체류객은 당일치기 관광객으로 구분하는 등 정확한 관광객 수를 산출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유럽 등 관광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입국 과정에서 산출하는 방법, 호텔 등록 이용객 수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늘어나는 관광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제주관광의 성장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떻게 관광객을 구분하고,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로,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 이를 별도로 구분할 것인지 전체 관광객으로 봐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토론내용

관광의 질적 관리를 위한 첫 단추로서 제주를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의 추계에 대한 논의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다음 토론을 이어가주셨으면 합니다. 크루즈 분야 전문가이신 임철수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임 철 수 한국관광공사 관광시장조사팀 팀장

관광은 수요자와 공급자, 지역주민으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UNWTO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관광위성계정을 조사·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 UNWTO에서 발표 중인 Compendium이란 자료입니다. Compendium은 전세계 150여개국의 숙박일 수, 객실 수, 1인당 관광소비율 등 10여개의 지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관광위성계정은 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2013년 이후 시도 단위로 조사 발표 중인데 총 14개 산업단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시적 차원에서 관광산업에 따른 고용효과, 생산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을 분석하여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리적·환경적으로 관광객 통계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지역단위에서 관광위성계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을 해야 경제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적화 이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최적화 이론은 카리브해 및 호주 등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발전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제주지역에 적합한 최적화 모델을 찾아가는 방법도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토론내용

세 번째로는, 크루즈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살피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뛰어나 인접시장이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숙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액이 작다는 한계가 있으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향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 또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기관 등에서 공동으로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임철수 팀장님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지정학적 위치와 성장 가능성을 보아 크루즈 육성을 필요 하되 숙박일 수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과 구별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다. 섬 관광 지로서의 발전모델을 설정하여 관리해나가야 한다. 관광위성계경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기여도를 살 펴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승익 국장님 토론 부탁 드립니다.



고 승 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국 국장

질적성장은 관광객의 만족보다 제주도민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 입니다. 발표자료나 제주도에서 발표한 지표의 경우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주민 만족도를 어떻게 측정하여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관광객 1인당 지출비용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지출이 지역 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즉 관광산업의 승수에 대한 계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1차원적인 체류일 수, 소비지출액, 만족도 등의 지표만으로 질적성장을 관리하기 보다는 승수 등의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토론내용

마지막으로 제주도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표와 함께 국내·외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제주도의 현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지표는 제주도의 현 위치를 명확히 살펴볼 수 없고, 그저 수치에 매몰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쟁지역 또는 유사한 환경의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이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기존 관광산업을 통한 만족이 관광객의 만족도만을 고민하였다면, 향후에는 일반주민 및 관광종사자의 만족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동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자께서는 그간 제시되어 왔던 지표 중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나 향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를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 석 창 JIBS 보도국장

저는 제주가 양적발전 중심에서 질적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업체 및 개발업체들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질적발전으로의 전환을 통해 일반도민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 지에 대한 지표가 명확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질적지표의 관리는 제주도가 계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표와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경계가 어떻게 연계되어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그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장을 타깃화하는 상품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소비행태가 급격하게 변화(모바일 쇼핑 증가 등)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지표화하는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질적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지표로 나타나는 경기와 일반 주민이 체감하는 경기간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민 체감형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매출 및 유통구조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토론자들이 제시하였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지표의 경우 5년 단위로 발표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유행과 기술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신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퍼런스 그룹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지표를 만들 때 성과를 의식하여 지표를 개발하기 보다는 주민의 만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계전문가이신 임홍철 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주요 토론내용



임 홍 철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행정팀 팀장

현재 제시된 질적지표는 관광객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관광객 실태조사의 경우 실태조사의 샘플이 너무 작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방문 관광객이 1,200만명 이상이 입도함을 감안할 때 샘플크기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분야의 일자리 mismatch,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등을 감안할 때, 업종별 사업체 조사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카드사와 제주도가 함께 추진 중인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표화한다면 질적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제가 알기로 예전에 비해 관광객 실태조사의 표본 수를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 표본 수를 늘리고자 한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mismatch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등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고용영향평가 등 다른 조사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 미 제민일보 경제부 부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객 만족도인지 도민 체감도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 질적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후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 등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 지표를 개발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향후 10~20년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표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질적지표는 보기 좋은 선전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토론내용

조 진 훈 제주컨벤션뷰로 마케팅팀 팀장

저는 질적성장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관광객 수에 집착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주에 도움이 되는 관광객 유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관광객이 더 머물고, 더 쓰고, 더 만족하고, 질적 소비지출이 높은 관광객 방문이 증가한다면 제주도민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도 등 행정부문에서 정해진 목표에 따라 우리 기관 등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지표 설정 시 단순히 그것을 달성하는데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진정한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관광과 관련된 기관이 질적성장을 위해 행동지침을 설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표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 흥 욱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

질적지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만족으로,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객 만족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광객 불편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정도를 지표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의 관리는 공사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제주는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마인드가 타 지역보다 낮아, 서비스 교육정도를 지표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박 운 정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도에서 발표한 질적지표 중 마케팅다변화 지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표를 보고 중국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제주관광의 미래를 살펴볼 때 체제일 수가 많은 북미, 유럽지역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또한 중요한 시장으로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토론내용

다만,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질적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하나, 현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관광 시장의 주요 시장에 대한 기초자료를 보다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 호 석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팀장

제주관광의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관광수입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 및 관광공사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보완 중인 사항입니다. 기존 1인당 소비지출비용에 관광객 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자 접근 방식으로 관광수입을 추계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질적성장을 위한 데이터로서 빅데이터를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도와 카드사, 저희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느 지역의 어떤 업종에서 관광객이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질적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발전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 문 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책기획실 실장

현재 토론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주민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산업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하며,

저희 관광협회에서는 매년 관광사업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부문에 대한 고민을 위해 업종별로 조금 세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보다 세부적으로 관광산업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관광협회에서 실시되는 사업체 조사는 협회에 속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소속된 사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체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광협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여 함께 추진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승 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관광의 성장세를 살펴볼 때, 현재 양적성장 기조는 지속될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성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다고 하여 양적성장에 대한 관심을 갑자기 끊는 것은 제주관광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질적성장으로의 변화와 함께 양적성장에 대한 관심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적성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이의 대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시된 지역주민의 체감도 부족 등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이것이 명문화되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적성장의 개념은 어떠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없이 질적지표만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토론내용



마지막으로 앞서 토론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표와 관련하여 관광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계와 관광사업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과 관련한 지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철 수 헤드라인제주 대표

저도 정승훈 박사님의 의견에 일면 동감하고 있습니다. 도의 기조는 기존 관광객 유치 목표를 없애면서 도민 소득 기여를 질적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객 통계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어야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발표되고 있는 관광객 통계 및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 등에 대한 신뢰와 활용도가 낮은 실정으로 정책 입안자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체 및 도민이 활용가능 하도록 통계를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숙박통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 성 준 세계일보 사회2부 차장

제가 제주관광의 성장세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예측과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숙박시설의 경우 급작스런 관광객 증가를 감안하지 못하여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공급과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면세점의 객단가,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 렌터카 요금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해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요 토론내용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제2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제1부 토론에서 질적성장의 필요성 및 질적지표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다면, 제2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1부 토론을 통해 느끼신 점에 대해 발표자이신 전효재 센터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효 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계R&D센터 센터장

제1부에서의 토론을 통해 어느 정도 토론자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질적지표와 관련하여 발표내용에 제시하였다시피 어떠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표는 재정집행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므로, 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해 어떠한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계를 지표로서 계속 사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통계는 대표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변화를 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에 적합한 지표를 만들고, 이것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고승익 국장님이 말씀하셨듯 타 지역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 태 엽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과장

질적성장에 대한 화두는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지만, 예전에 관광사업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도민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도에서는 관광객 수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제는 다양한 지표를 목표로 하여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주요 토론내용

이번년도가 질적성장의 처음 시작연도로 지표설정 및 관리 방안을 모색 중이나, 관광객 수도 목표 설정은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토론회 종료 이후 관광공사, 협회 등이 참여한 TF 팀 운영 등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창 식 제주관광학회 학회장

저희 제주관광학회 차원에서도 제주의 질적성장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관광학회에서 수립한 관광진흥계획에서는 2018년 1700만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는 조기 달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숫자가 진짜 관광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정확한 입도 관광객 수 관리를 위해서는 입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면서 관광시설에 대한 만족도, 관광종사원에 대한 만족도, 관광상품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민 규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 팀장

저는 제주관광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적지표가 발표되었으나, 질적성장에 대한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제시된 마케팅 다변화 지수는 양적성장에 중점을 둔 지표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마케팅은 정확한 목표 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부문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 석 창 JIBS 보도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관광객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지출규모가 큰 관광객의 유치와 제주방문 관광객의 소비지출액을 늘리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승훈 박사님께서 이야기 한 것처럼 양적성장에 대한 관심도 함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의 시각에서는 질적성장이라는 정책기조가 지속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불안함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책입안자가 바뀌게 되면 정책기조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적성장에 대한 필요성은 도민사회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정책적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 승 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국 국장

저는 관광산업에 따른 관광수익의 외부유출 감소, 소규모 관광사업체 지원 확대, 관광기금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질적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토론내용

이와 함께 관광객 및 사업체 뿐만 아니라 도민의 만족지수(도민, 사업체 포함)를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 운 정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저는 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느끼는 제주관광의 질적성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관광 중심으로 일반화된 제주관광 상품의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밀착형 관광상품의 개발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밀착형 관광상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진흥기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 참여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창 현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 처장

먼저 전호재 센터장님께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센터장님의 발표에서 나왔던 마케팅 관리 지표와 정책 지표는 상이하다는 표현에 공감하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도에서 제시된 지표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은 질적성장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적성장의 문제점에 대해 개념화하여 질적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가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표와 관련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정책지표, 마케팅지표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제주관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영학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자산의 현황이 어떻게 되며, 관광과 관련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수익과 관련한 지표가 중요한데, 관광업계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지표는 관광업계의 다양성 및 현실을 반영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발굴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과 성장성에 매몰되기 보다는 다양성 및 주기성 등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폭넓게 관광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창 식 제주관광학회 학회장

다시 한 번 질적성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수용태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과잉공급에 따른 덤핑 문제, 수용력을 초과한 방문 관광객 수 등의 문제 등이 제주관광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토론내용

현재 생산되고 있는 방문 관광객의 행태, 목적, 소비지출 등과 관련한 지표를 잘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관리를 잘하고 있어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관광객의 경우 제주방문 욕구가 메르스 등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의 재방문의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관광공사 및 관광협회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연계하여 당면 문제를 도출하고 관광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광지 난립에 따른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해 대규모 관광지 개발은 지양하고, 관광객의 욕구에 맞춘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합니다. 관광종사원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등의 문제가 있어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므로 학·연과 연계를 통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그간 이루어진 토론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하면,

① 관광객의 성장성은 담보되어 있어, 수익성에 대한 관리를 위한 방안이 가장 현안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광통계(소비지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② 일반도민의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인 지표보다는 고용효과, 세수효과 등과 같이 객관적인 지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③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재방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 과거 방문객의 재방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방문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야 한다.

④ 체류일수와 관련하여 크루즈, 마이스 등의 관광객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질적성장의 개념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현재 질적성장의 개념을 보다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 철 수 한국관광공사 관광시장조사팀 팀장

현재 제주관광의 포지션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비자,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질적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중국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무비자 정책 추진 예정으로 제주에는 큰 영향이 발생할 것입니다.

국내관광객과 관련해서는 올레, 저가항공사 등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둘레길이 360여개가 생기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시장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80년대 동남아 시장에 밀렸던 제주관광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토론 결과 질적성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모두 하고 있으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이와 관련한 법제화를 통해 추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토론내용

전 호 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계R&D센터 센터장

제주관광의 질적지표 설정은 마케팅 지표와 정책 지표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관광시장의 타깃을 고려하고, 각 시장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가 개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리를 해야 하는 지표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정책 안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나 협회 등의 역할을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통계와 관련해서는 데이터만큼 좋은 연구가 없으며,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전략을 수립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재 흥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미래 비전의 컨셉은 청정과 공존이며, 6대 분야 중 하나로 휴양과 관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양과 관광분야의 목표는 도민 체감형 휴양 관광 공동체 제주, 도민 체감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으며, 질적성장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관광도 양적성장 못지 않게 수익성, 가성비 높은 관광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관광산업이 수수료 기반의 가격 경쟁 중심에서 질적 성장과 제주 고유의 자원을 중심으로 한 가치 중심으로 바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출액과 함께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산업이 바뀌어야 하며, 패키지 중심의 관광에서 FIT 중심의 관광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질적성장 실현가능한 정책적 접근은 낮은 수준 도의 관광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제주관광공사는 앞으로 이러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주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 추진성과

○ 제1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 일시 : 2016년 1월 19일(화)
- 주제 : 제주관광 질적성장 방안 모색
- 세부내용

·주제발표 : 국내외 질적성장 지표 관리 사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계R&D센터장 전효재)

·참가자 명단(가나다 순)

강석창 JIBS 보도국장

고 미 제민일보 경제부 부국장

고승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국 국장

김창식 제주관광학회 학회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과장

문경호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 처장

박운정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양호석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팀장

오문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책기획실 실장

오홍욱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 처장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임성준 세계일보 사회2부 차장

임철수 한국관광공사 관광시장조사팀 팀장

임홍철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행정팀 팀장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장성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계·R&D센터 센터장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

조진훈 제주컨벤션뷰로 마케팅팀 팀장

■ 향후 추진계획

- 제주관광 이슈 관련 월별 워크숍 지속 추진 및 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 월별 워크숍 개최 결과 공사홈페이지 게재(www.ijto.or.kr)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이런 혜택,
중문면세점에서
누리다!!



국내 관광객 누구나 이용 가능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문의 064 780 7700 www.jejudfs.com

제주관광공사면세점 수익금은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 쓰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중문관광단지내 주상절리 옆)

www.jejudfs.com

중문면세점 ▾

검색



**FOR
YOU.**



**Duty free of you, by you, for you,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THE JEJU DUTY
FREE**

濟州觀光公社

www.jejudfs.com

 **Google play**

 **App Store**